

# 학술분야 전자책 컨소시엄 체결

북토피아 · 복사전송권센터 · 과학기술정보원 참여

1만 3천종에 달하는 학술분야 도서들이 디지털화를 통해 보급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돼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국화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양병태)과 전자책 전문기업 북토피아(공동대표 김혜경·오재혁),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이사장 조동성) 3개 기관이 최근 학술분야 도서의 디지털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학술분야 전자책 구매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

학술분야 전자책 구매 컨소시엄이란 컨소시엄에 가입한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전자책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전자책 구매를 일괄적으로 대행하는 '전자책 구매 대행' 기구를 말한다. 이에 따라 한국화학기술정보연구원이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가 저작권을 보증한 전자책 리스트를 컨소시엄 가입 기관에 제공하면, 가입 기관들은 필요한 전자책을 북토피아를 통해 독점적으로 제공 받게 된다.

이번 컨소시엄 체결을 두고 업계에서는 ▲국내 학술도서의 신속한 디지털화 ▲자료 도입 기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 등 국가 지식정보 인프라를 구성하는 각각의 주체들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부분은 국내 학술도서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

그동안 국내 학술도서 출판사들은 단행본 출판사들에 비해 디지털 사업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이 일반적이었다. 학술도서의 경우 문학작품 등과 달리 일부 내



한국화학기술정보연구원과 전자책 전문기업 북토피아 그리고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등 3개 기관이 최근 '학술분야 전자책 구매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사진은 계약식 모습

용만 공개되더라도 책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인식했기 때문. 그러나 '학술분야 전자책 구매 컨소시엄' 구성이 알려지면서 박영사(대표 안종만), 법문사(대표 배효선), 학문사(대표 김영철), 다산출판사(대표 강희일) 등 국내 대표 출판사 50여개가 1만 3000종에 달하는 학술분야 전자책을 컨소시엄을 통해 유통기로 결정한 상태다.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강희일 부이사장(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은 "컨소시엄이 구성되고, (주)디지털전문도서가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계기로 그동안 디지털화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왔던 학술분야 출판사들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면서 "컨소시엄이 활성화되면서 한 동안 인터넷의 발달과 불법 복제로 고전해온 국내 학술분야 출판사들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